

요트참가자들의 기본심리욕구와 운동참가동기 및 지속적 참여 의도의 구조모형 검증

Structure-Model Verification of Yacht Participants' Motivation,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and Intentions of Persistent Participation

김미량
서울대학교

Mi-Lyang Kim(leisuremania@gmail.com)

요약

본 연구는 이론적 근거를 통해 요트참가자들의 운동참가동기와 기본심리욕구 및 운동에 대한 지속적 참여의도의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운동참가동기와 기본 심리욕구는 생활체육참가자의 활동지속의도에 매우 관여적인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위해 요트동호회 회원과 대학요트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67부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12.0과 AMOS 7.0 을 사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공변량구조모형 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요트참가자들의 기본심리욕구, 참가동기 및 지속적 참여의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요트참가자의 기본 심리욕구는 지속적 참여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동시에 참가동기를 매개로 간접 영향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참가동기는 지속적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요트참가자의 운동참가동기와 기본심리욕구 및 지속적 참여의도의 구조방정식모델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요트참가자 | 운동참가동기 | 기본심리욕구 | 지속적 운동의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verify the structure model of yacht participants' motives for sport participation, satisfactions of basic psychological need and intentions of persistent participation. Their motives for sport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desires are reported as variables involving so much in their intentions of persistent participation in the sport activity in which participants of Life Exercise take part. Therefore, a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by aiming at members of yacht lovers' groups and university yacht clubs, 267 copies of the questionnaire in total were used for the analysis. SPSS 12.0 and AMOS 7.0 were used for the processing of the data,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covariance structure model analysis were also applied according to each study objective.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yacht participants'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desires, participation motives and intentions of consistent participation. Secondly, yacht participants'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desires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and direct effects on their intentions of persistent participation while having indirect effects through the medium of their motives for sport participation at the same time. Thirdly, their motives for sport participat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intentions of persistent participation. Fourthly, suggested by the study,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yacht participants' motives for sport participation,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desires and intentions of persistent participation was found statistically appropriate.

■ keyword : | Yacht Participants | Motivation |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 Intentions of Parsistent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은 생활의 질적향상과 함께 경제적 풍요와 노동시간의 단축, 여가시간의 증대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로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 많은 사람들은 레저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다[1].

오늘날 현대인에게 레저스포츠 참여는 신체적 움직임을 통한 건강의 측면 뿐 아니라, 심리적 건강의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2]. 또한 다양성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의 탈 현대성 맥락의 측면에서 레저스포츠에서도 자연스포츠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연스포츠는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어 있는 일상적인 신념과 가치로 부터 탈피할 수 있게 해주며 또한 대부분의 자연 친화적 스포츠는 내재적인 만족과 협동을 강조한다. 이러한 가지는 자연 친화적 스포츠의 목적이 즐기고,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느끼는데 있기 때문이다[3].

특히, 이러한 자연친화적 스포츠 중에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에 가장 어울리는 해양스포츠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가선용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국가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스포츠이며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하여 다양한 해양스포츠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4]. 해양수산부[5]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양스포츠 참여인구는 2000년 157만명에서 2003년 239만명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637만명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해양스포츠의 꽃으로 불리는 요트는 아직까지 일부 특수 계층이 즐기는 스포츠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요트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호화로운 크루저 위에서 와인을 마시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현실이다. 요트의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아직까지 요트는 생활체육으로써 저변인구가 확대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덩기급 레이저, 470 등의 요트는 매우 작아 일반인들이 비용면에서도 부담 없이 쉽게 즐길 수 있고 하루 정도 교육을 받으면 스스로 탈 수 있다. 또한 요트는 바다와 바람을 이용하여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항해

를 하는 색다른 느낌을 주는 스포츠로써 어느 스포츠에 서도 느낄 수 없는 자유로움과 스릴을 가져다준다.

이렇듯 생활체육으로써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요트가 아직까지 많은 저변확대가 되지 않은 데는 학계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제까지 많은 연구에서 운동이 주는 생리적, 사회적, 심리적 효과에 대한 이득을 연구해 왔으나 요트에 대한 연구는 몇 개의 요트선수에 관련된 연구[6]만이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생활체육으로써 요트 참가자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운동참여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왜 운동에 참여하며 운동을 지속하는 이유 등 운동행동을 동기화시키는 결정요소가 무엇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운동 참여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심리적 욕구만족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운동의 지속과 중단은 부분적으로 운동행동의 기초가 되는 동기에 관련된다. 운동 참가동기와 관련된 연구[7-9]에서는 운동행동을 동기화시키는 결정요소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즉 운동지속 정서 그리고 인지 등에 주요한 내적동기를 증진시키는 심리적 매개변인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10]은 자결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11][12]을 제시하고 있다. 자결성이론(STD)의 핵심은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의 욕구 등 타고난 3가지 기본적 심리적 욕구(needs)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정의하는데 있다. 체육의 영역에서 심리욕구 만족과 동기 관련된 최근의 선행 연구[13-15]들은 기본심리적욕구 만족이 동기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체육으로써 요트참여자의 참여지속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매개변인인 기본심리욕구 요인이 참가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또한 참가동기와 기본심리욕구가 일반 운동참여자의 궁극적인 목적인 운동지속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운동참여행동 모형을 검증함으로써 생활체육으로써 요트의 저변확대와 참여지속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요트참가자들의 심리과정을 이해하고 저변을 확대시키는데 주요한 이론적 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모형과 가설

이제까지 운동지속을 위한 대부분의 연구는 동기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었다[13][16-19]. 그러나 최근 동기를 결정하는 주요 심리적 매개변인이 기본적 심리욕구만족에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는데 [19][20] 이러한 연구는 동기가 행동을 일으키는 주요 심리적 변인이지만 행동결과에 중요한 요인인 내적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심리적 매개변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등의 심리적 욕구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운동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기본심리욕구는 지속적 참여의도와 참여동기에 영향을 미치며 참여동기는 운동의 지속적 참여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림 1]과 같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기본심리욕구는 지속적 참여의도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참가동기는 지속적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연구모형은 적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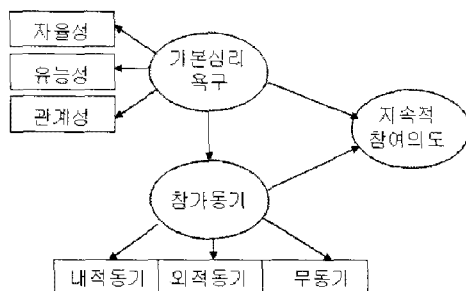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으로 요트에 참가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표집은 3군데의 일반 요트동호회 회원과 3개 대학의 요트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315명을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하였다. 조사결과 미회수된 설문지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등 48개를 제외하고 총 26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사례수(명)	백분율(%)
성별	남	195	73.03
	여	72	26.97
연령	20대	79	29.59
	30대	67	25.09
	40대	75	28.09
	50대 이상	46	17.23
학력	고졸	18	6.74
	대졸	194	72.66
	대학원 이상	55	20.60
월수입	200만이하	55	20.60
	300만이하	61	22.85
	400만이하	84	31.46
	400만이상	67	25.09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설문지이다. 먼저 기본적심리욕구 척도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eci와 Ryan[11], Vallerand와 Rousseau[21]가 연구한 일반심리욕구 척도와 Vlachopoulos와 Michailidou[22]가 개발한 운동기본심리욕구 척도에 근거하여 정용각[23]이 개발하고 김규동[13], 정은이[14]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본심리욕구척도는 자율성 5문항, 유능성 4문항, 관계성 5문항으로 3개요인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GFI=.953, TFI=.928, RMSEA=.023으로 구조적 타당성이 검증되었고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가 자율성은 .782, 유능성은 .924, 관계성이 .788로 나타났다.

운동 참가동기는 Pelletier 등[24]의 SMS를 참고하여 여가운동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정용각[25]이 수정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내적동기(intrinsic motivation: IM), 외적동기(extrinsic motivation: EM), 무동기(amotivation: AM) 등 3분류로 되어 있으며, 7개의 하위요인에 총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구조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GFI=.756, TFI=.789, RMSEA=.066으로 적합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구조적 타당성의 재검토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가정의 점검으로 산포도와 잔차의 plot을 통해 선형성을 확인하고 커뮤널리티를 확인하여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방식으로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사각회전방식으로 요인을 회전시켰다. 요인의 선택 기준은 아이겐값이 1이상, 패턴행렬에서 요인부하량이 0.4이상, 요인의 설명력은 0.5이상으로 설정하고 요인간의 상관행렬의 검토, 고유치를 이용한 누적분산비율, scree plot과 요인구조의 해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인을 최종 결정하였다.

표 2. 참가동기의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요인	내적동기			외적동기		무동기
문항	자극추구	기술학습	건강/체력	사교	과시	무동기
자극1	.787	.083	.103	-.190	-.065	.193
자극2	.689	.056	-.007	.076	.054	.021
자극3	.658	.254	-.030	.082	.142	-.020
자극4	.598	.335		-.312		
자극5	.471	.082	-.059	.066	-.004	.066
기술1	.042	.754	.079	.101	.164	.311
기술2	.099	.741	.374	-.028	-.067	.093
기술3		.735	.313	-.033		
기술4		.652		-.084		
기술5	-.042	.542		.086	-.154	.058
건강1	.093	.101	-.689	-.177	-.096	-.020
건강2	.058	.063	-.623	.155	-.063	.066
건강3	-.020	.068	-.598	-.016	.030	.082
건강4	.066	.034	-.588	-.029	-.112	.222
건강5	.082	-.121	-.517	-.094		.112
사교1	-.013		-.123	.797	.142	
사교2	.041		.059	.513	-.040	
사교3	.018			.478		
사교4	.064	.082		.455		
사교5	-.133	-.312		.406		

과시1	-.103	.066				.503
과시2	.081	.101	.123			.488
과시3	.221	-.028	.326			.459
무동기1		-.033	.104			-.751
무동기2			.391			-.744
무동기3			.377			-.674
무동기4						-.536
무동기5						-.520
고유값	5.740	4.543	3.143	2.140	1.580	1.080
분산(%)	22.357	20.057	12.970	8.521	4.295	3.306
누적(%)	22.357	42.414	55.384	63.905	68.200	71.506

*요인추출방법: 공통요인분석, 회전방법: 사각회전

참가동기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극추구, 기술학습, 건강 및 체력, 무동기 요인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5문항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의 경쟁 및 과시 요인에서 2개의 문항이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거나 요인부하량이 .4이하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검토 결과 2개의 문항은 경쟁에 관련된 문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개의 문항을 삭제하고 요인을 과시로 명명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25]에서는 7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몸매관리 요인으로 분류되었던 5개의 문항이 각각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거나 요인부하량이 현저히 낮아 문항검토 후 요인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참여동기요인은 6개 요인 23개의 문항으로 최종 구성되었다.

지속적 참여의도(intention to continue)는 정용각[26]이 개발하여 연구에 적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지속의도 척도는 현재 행하고 있는 운동에 대한 참여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의도를 묻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용각[26]의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4개의 문항만을 사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6개 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GFI=.998, TFI=.987, RMSEA=.008로 6개문항으로 구성된 지속의도 척도의 구조적 타당도가 확보되었으므로 6개 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지속의도의 Cronbach's α 는 .798이었다.

3. 자료처리방법

자료처리는 SPSS 12.0과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statistics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자극추구	기술학습	건강체력	사고	과시	AM
기본심리요구	자율성	1								
	유능성	.372**	1							
	관계성	.413**	.384	1						
IM	자극추구	.539**	.481	.282**	1					
	기술학습	.382**	.423	.323**	.681**	1				
EM	건강/체력	.324**	.301	.321	.574	.458	1			
	사고	.188**	.335	.561	.456	.523	.299	1		
	과시	.021	.213	.201	.299	.389	.165	.486	1	
AM	무동기	-.410**	-.210	-.189	-.322	-.222	-.312	.091*	.285	1
	지속참여의지	.478**	.458	.521	.700	.525	.689	.201	.152	-.314

표 5. 기본심리욕구, 참여동기, 지속적 참여의도 간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

경로	효과			CR	SMC
	직접	간접	total		
기본심리욕구					
- 참가동기	.527		.527	8.368**	.384
- 내적동기		.327	.327		
- 외적동기		.414	.414		
- 무동기		-.251	-.251		
참가동기					
- 지속적참여의도	.348			4.489**	.895
기본심리욕구					
- 지속적참여의도	.251	.419	.670	9.460**	.425
기본심리욕구					
- 자율성	.751		.751	9.967**	.530
- 유능성	.586		.586	7.347**	.501
- 관계성	.623		.623	8.982**	.605
참가동기					
- 내적동기	.687		.687	4.658**	.795
- 외적동기	.511		.511	4.119**	.486
- 무동기	-.308		-.308	3.784**	.259

먼저 기본심리욕구가 참가동기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527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 이에 대한 설명력은 $R^2=.384$ 로 38.4%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심리욕구가 동기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내적동기가 .327, 외적동기가 .414, 무동기가 -.251로 나타나 모든 하위요인에 정적 혹은 부정적인 간접효과가 있었다.

기본심리욕구가 지속적 참여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B=.251$ 로 참여지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001$) 간접효과는 .419로 나타나 전체 설명력은 $R^2=.425$ 로 4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동기가 지속적 참여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51이었고 참가동기의 하위요인인 내적동기에는 .687, 외적동기에는 .511, 무동기에는 -.308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가동기에서는 내적동기가 .687로 외적동기(.511)와 무동기(-.308)에 비해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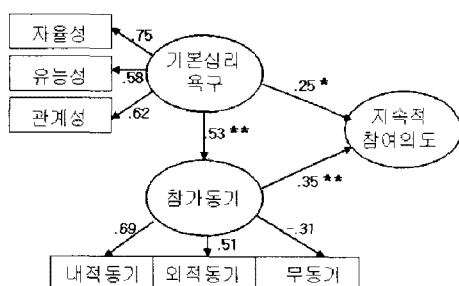


그림 2. 요트참가자의 기본심리욕구, 참가동기, 지속적참여의도의 구조모형

VI. 논의

기존의 스포츠 참여행동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동기의 영향에 의한 지속행동을 예측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7][25]. 이러한 참여동기에 의한 스포츠 참여행동의 예측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목표접근(goal perspective)이 가장 인기있는 주제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자결성에 의한 동기의 위계모형에 대한 연구[27][28]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자결성 이론에 의한 동기의 관계 그리고 행동결과에 대한 참여행동 모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활체육으로써 요트참가자의 참여행동 모형을 밝히기 위해 참가동기와 기본심리욕구 및 지속적 참여의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요트저변확대를 위한 기초자료제공에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에 의해 요트참가자의 참가동기와 기본심리욕구 및 지속적 참여의도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본심리욕구는 지속적 참여의도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참여동기는 지속적 참여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운동지속의도에 내적동기, 확인규제, 내적규제가 중요하다는 연구결과[29]와 Reid, Poulin 과 Valleran[30]의 신체활동 동기척도 연구에서 나타난 동기의 유형과 흥미, 집중, 긍정적 정서, 노력행동의 상관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요트 참가자의 기본심리욕구가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속적 참여의지에 직간접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기본심리욕구 요인에서 자율성 욕구가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자율성 욕구는 자신의 행동 근원으로서 개인의 욕구(desire)를 반영하며[11], 자신이 자율적으로 행동한다고 지각되었을 때 경험하는 것으로[31] 즉 운동의 선택이 자기가 좋아서 스스로 선택한 것인지 또는 운동 중에 느끼는 자율성의 정도를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말한다. 즉, 요트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이 좋아서 스스로 선택하고 운동 중에 자유감(perceived

freedom)을 느끼는 유능성과 관계성에 비해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의미이다. 유능성 욕구는 자신의 역량(capacities)으로 활동하고 표현하려는 기회를 경험하고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려는 성향을 말하며[31] 운동에서의 유능성은 자신이 지각하는 내적평가기기 때문에 운동선택과 집중에 중요한 지각이 된다. 관계성 욕구는 주어진 사회 환경에 소속되어 있거나 주요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느낌을 말한다[12]. 즉 운동상황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지도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지각을 말한다.

스포츠에 참가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높게 지각했다고 하더라도 함께 하는 다른 동료와의 관계가 나쁠 경우에는 그 운동참가 동기와 지속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자율성, 유능성, 그리고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환경 요인은 내적동기를 촉진시키고 외적동기를 내면화 시키지만 이러한 욕구를 무시하거나 방해하면 자결성 동기가 감소될 것이다[9][27].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요트가 특수한 계층이 즐기는 매우 돈이 많이 드는 운동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요트에 실제로 참가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참가동기에서는 사교나 과시 등의 외적동기에 비해 내적동기인 자극추구와 기술학습에서 지속적 참여의도에 매우 높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적동기에서도 과시보다는 건강 및 체력요인과 사교요인에서 지속적 운동참여의도에 보다 높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요트활동의 참여와 지속에 있어서 기본심리욕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트참가자들의 지속적 참여유도를 위해서는 자율성 지지 분위기, 유능감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 그리고 함께 하는 다른 참가자와의 인간적 유대관계와 분위기 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요트종목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도자들은 요트활동상황에서 참가자들에게 외적동기보다 내적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요트는 요트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과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선입견등에 의해 아직까지

생활체육으로써 저변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생활체육활동으로 요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참가동기와 기본심리욕구 그리고 지속적 참여의도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요트의 저변확대를 위해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또한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어떠한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참여동기 수준을 높여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요트의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실제 현장적용의 기초자료로 높은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요트참가자의 참가동기와 기본심리욕구 그리고 지속적 참여의도의 구조모형을 규명하여 궁극적으로 요트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첫째, 요트참가자의 기본심리욕구는 지속적 참여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요트 참가자의 참가동기는 지속적 참여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요트참가자의 참가동기와 기본심리욕구 그리고 지속적 참여의도의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전혀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요트참여자들의 참가동기와 기본심리욕구가 지속적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운동참여행동을 심리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그들의 운동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과 기본심리욕구와의 관계를 검증하고 궁극적으로 운동지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참가자들을 유형화하여 그룹별로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일반인들을 요트인구로 끌어들이고 지속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노영욱, 성인 스쿼시 참가자의 참여동기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2] 이창현, 스쿼시 동호인의 운동참여 정도가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3] D. S. Eitzen and G. H. Sage, *Sociology of North American Sports*, Madison, WI: Brown & Benchmark Publishers, 1997.
- [4] 해양수산부, *해양관광진흥 세부실천계획*. 서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2007.
- [5] 해양수산부,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서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2004.
- [6] 송은섭, 송명근, "요트선수의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방식",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4권, 제2호, pp.705-716, 2003.
- [7] 양명환, "직장인들의 운동 참여동기, 참여제약, 참여수준 및 지속의도 간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17권, 제2호, pp.35-52, 2006.
- [8] E. McAuley, M. M. Pena, and G. J. Jerome, *Self-efficacy as a determinant and an outcome of exercise*. In G. C. Roberts(Ed), *Advances in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Champaign, IL: Human Kinetics, 2001.
- [9] R. J. Vallerand, *A hierarchical model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In G. Roberts (Ed.), *Advances in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2nd ed., pp.254-278). Champaign, IL: Human Kinetics, 2001.
- [10] R. M. Ryan, C. M. Frederick, D. Leps, N. Rubio, and K. M. Sheldon, "Intrinsic motivation and exercise adhe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28, pp.335-354, 1997.
- [11] E. L. Deci and R. M. Ryan,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1985.
- [12] E. L. Deci and R. M. Ryan,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Vol.11, pp.227-268, 2001.
- [13] 김규동, *골프 참가자의 심리적 욕구, 참여동기와 지속의도의 관계모형 검증*,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4] 정은이, *댄스스포츠 참가자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참여동기와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5] M. Reinboth, J. L. Duda, and N. Ntoumanis, "Dimensions of coaching behavior, need satisfaction, and the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fare of young athletes," *Motivation and Emotion*, Vol.28, pp.297-313, 2004.
- [16] 김덕진, 양명환, "체육수업 상황에서 기본적 욕구, 동기유형 및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모형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17권, 제1호, pp.25-46, 2006.
- [17] 이동식, *체육수업 상황에서 기본적 심리욕구만족과 체육교사선호도가 체육수업선호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외국어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8] T. Mouratidis, M. Vansteenkiste, W. Lens, and G. Sideridis, "The motivating role of positive feedback in sport and physical education: Evidence for a motivational model,"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Vol.30, pp.240-268, 2008.
- [19] I. Taylor and N. Ntoumanis, "Teacher motivational strategies and student self-determination in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99, pp.747-760, 2007.
- [20] M. S. Hagger, N. L. Chatzisarantis, and J. Harris, "From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to intentional behavior: Testing a motivational sequence in two behavioral contexts," *PSPB*, Vol.32, No.3, pp.131-148, 2006.

- [21] R. J. Vallerand and F. L. Rousseau,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a review using the Hierarchical Model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 R.N. Singer, H.A. Hausenblas and C.M. Janelle (Eds.), *Handbook of Sport Psychology*, (2nd Ed), pp.389-416, New York: Wiley, 2001.
- [22] S. P. Vlachopoulos and S. Michailidou,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measure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in exercise: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exercise scale," *Measurement in Physical Education and Exercise Science*, Vol.103, pp.179-201, 2006.
- [23] 정용각, "스포츠와 운동에서의 심리적 욕구척도: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2006 한국사회체육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47-158, 2006.
- [24] L. G. Pelletier, M. S. Fortier, R. J. Vallerand, K. M. Tuson, N. M. Briere, and M. R. Blais, "Toward a new measure of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nd amotivation in sports: The Sports Motivation Scale(SM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Vol.17, pp.35-53, 1995.
- [25] 정용각, *여가운동 참가자의 스포츠 참여 동기, 각성추구, 정서의 요인이 스포츠 몰입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26] 정용각, "여가운동 참가자의 스포츠참여행동 모형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19권, 제2호, pp.195-214, 2008.
- [27] R. J. Vallerand, *Toward a hierarchical model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 M.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pp.271-360, San Diego, CA: Academic, 1997.
- [28] R. J. Vallerand and C. F. Ratelle,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A hierarchical model*. Dans E. L. Deci and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37-63, The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2002.
- [29] N. Chatzisarantis, S. Biddle, M. Hagger, and B. Smith, "A path analytic meta-analysis of the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in sport, physical education and physical activity contexts," *Journal of Sports and Exercise Psychology*, Vol.25, pp.284-306, 2003.
- [30] G. Reid, C. Poulin, and R. J. Vallerand, "A pictorial motivation scale in physical activity for people with a mental disability: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Sports & Exercise Psychology*, Vol.16, S96, 1994.
- [31] R. M. Ryan and J. G. La Guardia, *What is being optimized over development?: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basic psychological needs across the life span*. In S. Quails & R. Abeles (Eds.), *Dialogues on psychology Association*, 2000.

저 자 소 개

김 미 량(Mi-Lyang Kim)

정회원



- 2008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졸업(체육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연구교수
- 대한요트협회 이사

<관심분야> : 여가심리행동, 연구방법론, 레저스포츠